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7호 [무게 제25045호] 주104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대성지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기계를 마련하여 기증하는 등 태양의 성지에 온갖 정성을 바쳐가고있다. 백두산철쭉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실 뿐 아니라 대성은행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많은 문건지체들과 조명기구들을 보내줌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관리사업에 기여하였다. 뮌헨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직차에 걸쳐 수송이 좋은 나무모들과 꽃씨들을 금수산지구에 심으면서 총성의 자욱을 새기었으며 태양의 성지꾸리기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지난 시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온 중앙은행 합경남도 합흥시 동흥산지점 로동자 주정립은 주체의 최고성지를 빛내이는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평양시인민보안국 산하단위 인민보안국 김강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길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성의껏 마땅한 많은 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태양의 성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남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로 통사 배운에는 많은 기증품을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향기로운 화원속에 같이 모실 날 일념에 평양시무연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방순희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총성의 구슬

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함경북도제신관리국 정보통신국 부원 김금순과 로동자 리정희는 10여자에 걸쳐 수송이 좋은 나무모들과 판비품들을 보내주어 주체의 최고성지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신의주교원대학 과장 방은주, 평북종합대학 의과대학 교원 백영순, 신의주시 역사동 4인민반 리만숙도 진기한 나무모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여러차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었다. 수평영생위원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경흥지도국 로동자 조옥심도 금수산태양궁전꾸리기를 적극 도왔다. 정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14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라선시피해 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살림집건설현장을 돌보고는 군인건설자들을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라선시의 전력, 제철, 철도망에 대한 복구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문을 김정은 동지께 보내주시었다.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쉴란드의 데이아통신, 미국의 UPI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세네갈신문 《레포르테르》와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정년발전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네발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전제기공식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민주공화국, 도이쉴란드의 인터넷들과 네발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의 명예를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수도와 지방에서 트로피,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준비위원회는 9월 20일부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청천강반에 련이어 울리는 시운전의 동음

희천 11호와 12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어디서나 당정책의 일관성을 드러는 자랑찬 로력적성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위오르는 가운데 련이어 울리는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발전소건설의 시각을 하루라도 앞당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드림 일념으로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희천 11호와 12호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불길은 당정책의 일관성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투쟁을 상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희천 4호로부터 10호발전소건설장까지의 발전설비시운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사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의욕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을 개발해낸 설비, 장치물들의 성능이 설계의 요구대로 원만히 발휘되게 하면서 어느 단위들도 다 발전기대수가 많은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11호발전소건설장에서 시운전 지휘부와 설비, 자체보장을 맡은 부문 일군들, 련단 전체 물적대원들과 육외변전소건설을 맡은 전력공업설비단, 발전기조립단위인 설비조립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련단에서는 시운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이미 공사량이 방대한 연제와 발전기건설에 힘을 넣고 방수로굴착을 비롯한 마감대공사들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왔다. 남은 공사기일에 비해 앞세워야 할 공정들이 적

지 않았지만 련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일기에 진행되었다. 강폭이 넓고 수문의 개수가 제일 많은것으로 하여 이 건설장에서의 시운전은 사전점검이공정을 충분히 거쳐 수문의 견고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시운전을 앞두고 탐수위를 이루며 드넓은 구역에 청천강물이 출몰하자 연제와 발전기실공사를 맡아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전투원들, 수문공사를 도와나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열광마다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여있었다. 발전소연계공사를 맡은 남포시려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어느 단위들보다 공사장에 뛰는 것이 전제된 불리한 정황에서도 지난해 정초 강추위를 맞받아뚝 고나가며 큰 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기초굴착과 라이공사를 확장하게 밀고나갔다. 련단에서는 수문조립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조립과 설치, 연마와 도색 등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들을 립체적으로 벌려왔다. 하여 방대한 수문조립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어 물잡이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에서는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 련계로 발전기실하부설비와 본체조립을 내밀면서 발전기실내외부공사와 방수로굴착 등을 힘있게 벌려 마감공사를 다그쳐 끝내었다. 특히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수문조립공사에 조립과 물고기를 등 공사에 앞장서고 있다. 발전기실하부의 각종 탱크와 배관설치 등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설비들이 도착하는 즉시 발전기본체조립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끝내는 집단적혁신을 얻어낸 단위들보다 공사장에 뛰는 것이 전제된 불리한 정황에서도 지난해 정초 강추위를 맞받아뚝 고나가며 큰 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기초굴착과 라이공사를 확장하게 밀고나갔다. 련단에서는 수문조립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조립과 설치, 연마와 도색 등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들을 립체적으로 벌려왔다. 하여 방대한 수문조립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어 물잡이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에서는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 련계로 발전기실하부설비와 본체조립을 내밀면서 발전기실내외부공사와 방수로굴착 등을 힘있게 벌려 마감공사를 다그쳐 끝내었다. 특히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수문조립공사에 조립과 물고기를 등 공사에 앞장서고 있다. 발전기실하부의 각종 탱크와 배관설치 등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설비들이 도착하는 즉시 발전기본체조립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끝내는 집단적혁신을 얻어낸 단위들보다 공사장에 뛰는 것이 전제된 불리한 정황에서도 지난해 정초 강추위를 맞받아뚝 고나가며 큰 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기초굴착과 라이공사를 확장하게 밀고나갔다. 련단에서는 수문조립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조립과 설치, 연마와 도색 등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들을 립체적으로 벌려왔다. 하여 방대한 수문조립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어 물잡이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필요한 물동수송성과 확대

철도 운수 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이수송을 보장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라선시피해 복구전투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 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시각을 하루라도 앞당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드림 일념으로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희천 11호와 12호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불길은 당정책의 일관성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투쟁을 상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사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의욕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을 개발해낸 설비, 장치물들의 성능이 설계의 요구대로 원만히 발휘되게 하면서 어느 단위들도 다 발전기대수가 많은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11호발전소건설장에서 시운전 지휘부와 설비, 자체보장을 맡은 부문 일군들, 련단 전체 물적대원들과 육외변전소건설을 맡은 전력공업설비단, 발전기조립단위인 설비조립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련단에서는 시운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이미 공사량이 방대한 연제와 발전기건설에 힘을 넣고 방수로굴착을 비롯한 마감대공사들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왔다. 남은 공사기일에 비해 앞세워야 할 공정들이 적지 않았지만 련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일기에 진행되었다. 강폭이 넓고 수문의 개수가 제일 많은것으로 하여 이 건설장에서의 시운전은 사전점검이공정을 충분히 거쳐 수문의 견고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시운전을 앞두고 탐수위를 이루며 드넓은 구역에 청천강물이 출몰하자 연제와 발전기실공사를 맡아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전투원들, 수문공사를 도와나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열광마다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여있었다. 발전소연계공사를 맡은 남포시려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어느 단위들보다 공사장에 뛰는 것이 전제된 불리한 정황에서도 지난해 정초 강추위를 맞받아뚝 고나가며 큰 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기초굴착과 라이공사를 확장하게 밀고나갔다. 련단에서는 수문조립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조립과 설치, 연마와 도색 등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들을 립체적으로 벌려왔다. 하여 방대한 수문조립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어 물잡이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이수송을 보장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라선시피해 복구전투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 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시각을 하루라도 앞당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드림 일념으로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희천 11호와 12호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불길은 당정책의 일관성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투쟁을 상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사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의욕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을 개발해낸 설비, 장치물들의 성능이 설계의 요구대로 원만히 발휘되게 하면서 어느 단위들도 다 발전기대수가 많은 이 건설장들의 특성에 맞게 설비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11호발전소건설장에서 시운전 지휘부와 설비, 자체보장을 맡은 부문 일군들, 련단 전체 물적대원들과 육외변전소건설을 맡은 전력공업설비단, 발전기조립단위인 설비조립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련단에서는 시운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이미 공사량이 방대한 연제와 발전기건설에 힘을 넣고 방수로굴착을 비롯한 마감대공사들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왔다. 남은 공사기일에 비해 앞세워야 할 공정들이 적지 않았지만 련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일기에 진행되었다. 강폭이 넓고 수문의 개수가 제일 많은것으로 하여 이 건설장에서의 시운전은 사전점검이공정을 충분히 거쳐 수문의 견고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시운전을 앞두고 탐수위를 이루며 드넓은 구역에 청천강물이 출몰하자 연제와 발전기실공사를 맡아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남포시려단과 태천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전투원들, 수문공사를 도와나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열광마다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여있었다. 발전소연계공사를 맡은 남포시려단의 지휘관, 물적대원들은 어느 단위들보다 공사장에 뛰는 것이 전제된 불리한 정황에서도 지난해 정초 강추위를 맞받아뚝 고나가며 큰 규모의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기초굴착과 라이공사를 확장하게 밀고나갔다. 련단에서는 수문조립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조립과 설치, 연마와 도색 등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들을 립체적으로 벌려왔다. 하여 방대한 수문조립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끝내어 물잡이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대화물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단원마그네사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명주실, 고치솜생산에서 혁신

자강도에서 뜻깊은 올해 누에고치 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명주실, 고치솜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의 작업부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봄누에고치생산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에서는 지난 8월 20일까지 작업부서의 농업근로자들이 생산한 누에고치전량을 희천제

표준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고치솜생산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이 희천제사공장에 건설중인 명주실과 고치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밀어주고있다. 도에서는 가을누에고치생산이 마무리되는속속 누에고치를 희천제사공장과 강계정방직공장에 지체없이 보내주는 대책도 세웠다. 특기기사 동 세 웅

표준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고치솜생산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이 희천제사공장에 건설중인 명주실과 고치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밀어주고있다. 도에서는 가을누에고치생산이 마무리되는속속 누에고치를 희천제사공장과 강계정방직공장에 지체없이 보내주는 대책도 세웠다. 특기기사 동 세 웅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훌륭한 연구성과들의 과학자 학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한 과학연구성과와 빛날 일임을 안고 년초부터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온 의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당위원의 지도밑에 의과학원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연구자로서 돌이키고 그 관철을 이룩하고있다. 의과학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의 증진과 나날을 이어가며 G형, TT형간염비루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G형, TT형간염비루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방법이 확립됨으로써 간이염비루스의 역학적의를 밝히고 수혈후에 발생한다는 이 질병을 막을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값비싼 형광검출장치와 형광시약이 적은 생분자판을 만들수 있는 생분자판 제작기술을 확립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미생물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수두비루스의 병원성을 없애는 방법이 수두약독화에 방향을 개발하고 많은 항을 생산하여 여러 기관들에 공급하였으므로 예방의 질과 보관은 도, 보관기간을 더욱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이룩하고있다. 의과학원연구소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 개발된 부정맥진단시뮬레이션프로그램, 심박변동분석제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수혈, 경화되고 오랜 시간 통찰할수 있는 휴대용 심전계를 제작하였으며 이것을 심전계측을 비롯한 치료에방 기판에 도입하였다. 또한 휴대용 심전계를 더욱 발전시켜 휴대용 심전계를 환자의 손전등에 현지조사에 필요에 따라 전문의사의 손전등에 적용하여 의

견을 받을수 있는 장치개발도 마다마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합성제약연구소에서는 전신마취약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아롬페이트와 이소프로판올 및 수환기, 간장, 콩팥기능에 대한 약제작용이 적은 새로운 주사약을 연구개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를 위하여 불리한 합성공정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거름물이 높은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의과학원에서는 새로운 침단체를 개발하고 의약품들을 국산화하여 위생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서 의의있는 과학연구성과들도 이룩하고있다. 또한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를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천연물약물연구소에서는 고압균질화기를 자체로 제작하고 영양실조종이나 영양제에한 자체로 쓰는 기구제작을 연구개발하여 보건성을 비롯한 치료에방기판에 생산공공하고 있으며 진통효과가 좋으면서도 위장장애를 비롯한 부작용이 적은 아로페이트를 개발하여 현장에 도입하고있다. 약학연구소에서는 닭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케옥신수술을 위한 수산화물염 연구개발하였으므로 수산화물염

일군들은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자

작전도 실천도 인민군대식으로

야전형의 지휘성원! 우리 당이 바라는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적 지휘성원들이 일군들이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격렬한 전방에

전투적전선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의 위치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볼 때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일군들이 들끓는 현장에서 야전적으로 사업을 작전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군당위원회의 년간사업을 설계하든 올해초의 일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과학기술사업과 농산, 축산, 수산은 3대축으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경제공업장들의 활성화와 발전소건설, 산림복구사업... 할 일은 매우 방대하였다. 하지만 군당위원회는 당정책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전투계획을 세울 때 주력방향을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와 선우자를 옮겨 가으며 그

이천군, 송원군 당 위원회들에서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전투장의 한복판에 위치를 정하고 대중을 당정책위행위로 불러 일으며 성과를 거두고있는 당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이렇듯 군당일군들은 발이 달도록 뛰어나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거리를 찾아냈다. 그런 다음 집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70여개소에서 주도세밀하게 세웠다. 지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이천군은 강연도적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고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모든 전투작전을 인민군대식으로 진행한것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본사기자**

위치를 정하고

에 따르는 혁명정성을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년간사업을 설계하였다. 발전소건설을 주력방향을로 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던 때의 일을 놓고보자. 군당책임일군에 앉았어 섰다. 지난해 이미 수십번이나 현지로 나가서 발전소건설할 자리를 잡아놓은 그였으나 전기문제를 전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우는데 대한 경제하는 원수진의 올해선년사의 사상을 깊이 새긴 그는 군의 일군들과 다시금 현장에 나와 최종적으로 위치를 확정하였다. 그 자리에서 군의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혁명정성론

이천군, 송원군 당 위원회들에서

제, 대중의 정신적방문문제 등을 토의한 후 전투계획의 한 조항으로 올리였다. 최철설, 리승봉동무를 비롯한 군당일군들도 주민지대의 여러 단위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아냈다. 농촌리들의 문화주택건설, 국수집게건설, 강하천제방공사, 은덕원의 내외부보수, 읍거리의 가로통설치... 이렇듯 군당일군들은 발이 달도록 뛰어나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거리를 찾아냈다. 그런 다음 집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70여개소에서 주도세밀하게 세웠다. 지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이천군은 강연도적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고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모든 전투작전을 인민군대식으로 진행한것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본사기자**

이천군, 송원군 당 위원회들에서

이천군, 송원군 당 위원회들에서... (중략) ...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기본열쇠

구장세인트공강현대화공사장에서
구장세인트공강 현대화공사에 열심된 동격대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룩한 성과도 크다. 자랑많은 동격대원들의 투쟁노력과 함께 그들을 위문장으로도 힘있게 불러주는 위대한 정치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전한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군이면 행정경제일군이면 초급일군이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 열쇠로 하여주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부여해야 합니다.》 구장세인트공강현대화공사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첫시작을 했다. 자재도 부족하고 로력도 모자랐다. 바로 이런 때 공사를 책임지고 나온 도당위원회 파견이었던 박정남동무는 먼저 동격대원들을 찾아오신다. 그는 일군들에게 박정남동무는 우리의 조건을 보기 전에

동격대원들의 마음부터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들이 하루하루 무엇을 풀내고 한중안이 달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나면 몸이 거뭇해져 다음날 더 많은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여기에 목욕탕건설은 그 어떤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심장을 울려주는 위대한 정치사업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런 뜨거운 진정을 지닌 당일군이었기에 그는 매일 아침 공사장에 제일 먼저 나와 일손을 잡았고 제일 늦게 속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자기의 뜨거운 심장으로 동격대원들의 심장을 울려주는 박정남동무의 사업기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동격대원들은 못쓰게 되었던 압연설비를 되살려 철강재를 자재로 생산하였고 기발한 착상으로 새로운 공법들을 창안하여 공사속도를 날같이 높여나갔다. 지난해 가을에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픔을 참으며 동격대원들을 위해 불같은 심장의 피를 장거리로 뛰어다니며 박정남동무는 동격대원들을 위해 진정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가 동격대원들을 위해 진정을 바친 사실은 수없이 많다. **본사기자 리종석**

동격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알아보고 웃고 내의, 신발과 비누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도 해결해주면서 친부모의 정을 쏟아부었다. 공사에 동원된 평안북도건설감독소 책임감독원 장순명동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동격대의 일군들과 함께 갖가지 생일상도 차려주었으며 부모가 없는 한 동격대원의 결혼식에는 안해와 함께 결혼초상도 성의껏 차려주었다. 동격대원들의 식탁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놓아주기 위해 그가 걸은 밤길은 또 얼마나 지루한가. 이렇듯 동격대원들을 위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은 동격대의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을 감동시켰다. 동격대원들은 하루같이 끝까지 총격현대의 화공사장을 떠나지 않고 역적으로 일하였다. 동격대원들은 추운 겨울에는 비닐막막집을 짓고 부세와 블로크도 생산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공장의 불같은 심장의 피를 장거리로 뛰어다니며 박정남동무는 동격대원들을 위해 진정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가 동격대원들을 위해 진정을 바친 사실은 수없이 많다. **본사기자 리종석**

새벽문은 일군들이 남먼저 열어야 한다

경강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 벌어지는 오늘 새벽문은 남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이 첫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새벽문을 일군들이 남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두해전 11월, 김철광동무가 탄광초급당비서로 임명되어왔을 때였다. 막장조건은 어려웠다. 매일이 물통이 터져 정들이 침수되곤 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그 요인이 불리한 조건 탓이라고 하였지만 초급당일군은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판에서 기발을 들이건너가 할 일부 일군들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현행생산을 차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몫을 내리지 못하고있다는 것만 관련되어있다고 보았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는 전투에서 마련된다는 말이 있지만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실재를 환기 켜줄 때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하고 전투진지도 먼저 차지하면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도록 요구성을 제기했을뿐만아니라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개발배수로보수공사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전구수를 잠야칠것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아픈잔 피를 흘수 있었다. 구체적인 타산과 효율적인 준비에 시작된 개발배수로보수공사는 예상했던것보다 빨리 진척되었다. 여러달이 걸려야 하던던 공사를 50일 동안에 끝냈던것이다.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나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켰다. 수시대의 대형블로크와 진공기들이 새겨처럼 보수정비되고 수천m의 배관공사도 짧은 기간에 걸쳐서야 배수능력이 대번에 1.6배로 뛰어오르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또 다른 실적이 있었다. 경강도안의 저수용정소작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지대한 박정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실재를 료해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나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켰다. 새벽부터 남먼저 전투진지를 차



2. 8 직동청년탄광의 막장길을 걷는 나의 눈앞에는 낮은 열굴이 선히 보였다. 열 안쪽마다 정자를 뿜는 사들이 탄부들과 함께 사는 당일군, 결속되어 막장에 들어와야 만날수 있는 초급당비서 리종철동무. 이 어두운 막장길에 무수히 새겨진 그의 발자국을 마음속으로 더듬어보거나 휘파람에 얽혀 들어가는 자의 사연들이 울려나온다. 전투조직과 지휘는 물론 회의까지도 현장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경강에 화상회의체계를 갖추어놓은 사실, 이해와 함께 짝을 지어 마련한 지원물자를 알고 탄부들을 찾아오고 구호해주는 이야기, 탄부의 호고로 막장에 갇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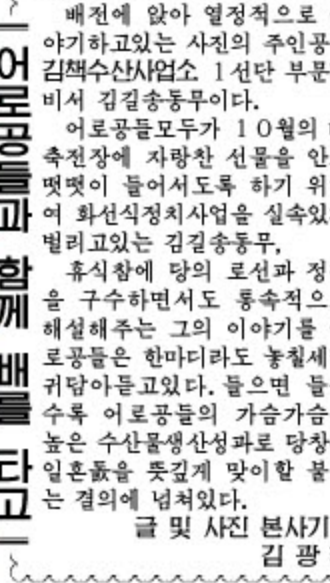
새 새벽문은 일군들이 남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두해전 11월, 김철광동무가 탄광초급당비서로 임명되어왔을 때였다. 막장조건은 어려웠다. 매일이 물통이 터져 정들이 침수되곤 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그 요인이 불리한 조건 탓이라고 하였지만 초급당일군은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판에서 기발을 들이건너가 할 일부 일군들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현행생산을 차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몫을 내리지 못하고있다는 것만 관련되어있다고 보았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는 전투에서 마련된다는 말이 있지만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실재를 환기 켜줄 때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하고 전투진지도 먼저 차지하면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도록 요구성을 제기했을뿐만아니라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개발배수로보수공사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전구수를 잠야칠것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아픈잔 피를 흘수 있었다. 구체적인 타산과 효율적인 준비에 시작된 개발배수로보수공사는 예상했던것보다 빨리 진척되었다. 여러달이 걸려야 하던던 공사를 50일 동안에 끝냈던것이다. 일군들이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나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켰다. 수시대의 대형블로크와 진공기들이 새겨처럼 보수정비되고 수천m의 배관공사도 짧은 기간에 걸쳐서야 배수능력이 대번에 1.6배로 뛰어오르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또 다른 실적이 있었다. 경강도안의 저수용정소작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지대한 박정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실재를 료해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나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켰다. 새벽부터 남먼저 전투진지를 차

수풍발전소장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작주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수풍발전소장립 70돐 기념보고회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덕훈대각부총리, 리만철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철 전력공업성 1부장, 판계부, 수풍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수풍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에서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영도파라 당창립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70돐을 맞는 수풍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4(1945)년 9월 24일 수풍발전소를 복구정비할때 대한 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지난 70년 동안 배후산업설비위원들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발전소가 위풍오르 빛나는 자랑찬 면모를 새겨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배후산업설비위원들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생산성으로 보람찬 일년이고 힘찬 로력투쟁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서 70년

평양곡산공장 창립일을 맞으며
어떠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목매어 전하며 생명의 동맥은 그 철새들이 울려대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공장이 또다시 폐허로 되였을 때였다. 돌보아야 할 일이 많으신 우리 수령님이었지만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 몸소 공장을 찾으셨다. 공장으로 돌아오신 이 어버이수령님의 생신날에 있는 이야기를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마음은 불덩이를 안은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랑, 파자생생의 기계 회를 꼭 실현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고 하시는 어머님의 뜨거운 호소를 이들은 눈물속에 새겨두었다. 4월 19일, 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가까이 당파유생산비를 자재로 만들어 우리 힘으로 사랑, 파자를 생산하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기계설비를 세운으로 만들어는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혜를 합치면서 끝끝내 사랑, 파자생생을 자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다. 사랑, 파자생생이 꾸려졌다. 이 보고를 받으시고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리신 장군님과 함께 공장을 찾아오신 날은 우리 당이 창건된지 3년째 인 주체37(1948)년 10월 10일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랑, 파자생생정령을 료해하시고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수 있게 생산능력을 더 확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때부터 공장의 생산능력은 크게 늘어났으며 인민에 대한



배전에 앉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있는 사건의 주인공인 김철수산(왼쪽) 1선단 부부장 비서 김철수동무이다. 이로공물모두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체계를 신속하게 벌리고있는 김철수동무. 휴식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수하면서도 충성적으로 해설해주는 그의 이야기로 이로공물은 한마디라도 놓칠새라 귀담아듣고있다. 돌연 들을수록 이로공물의 가슴가슴은 높은 수산물생산성과로 당창립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희

배전에 앉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있는 사건의 주인공인 김철수산(왼쪽) 1선단 부부장 비서 김철수동무이다. 이로공물모두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체계를 신속하게 벌리고있는 김철수동무. 휴식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수하면서도 충성적으로 해설해주는 그의 이야기로 이로공물은 한마디라도 놓칠새라 귀담아듣고있다. 돌연 들을수록 이로공물의 가슴가슴은 높은 수산물생산성과로 당창립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서 70년... (중략) ...

제 2 의 패 망 이 기다 린 다

일본자민당 부총재 고부라가 안전보장판 법안이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해도 헌 국회중에 기어이 성립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듯이 바로 얼마전이었다. 안전보장 판법안에 대한 각계층의 항거가 비발치 는 때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거러졌을 때 내뿜은 소리는 결코 격기가 아니었다. 안전보장판법안이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 에서 통과되어 정식 법으로 성립될 것 이다. 이것은 정화를 넘긴다는 내외의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일본의 군국 주의 팽창이 극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 라라하게 보여준다.

지금껏 일본정부는 안전보장판법안이 자국의 안전보장판법인 《엄혹해지교》인 데 대한 《적절한 조치》, 《일본의 지위를 위 한 조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이만저만 애를 쓰지 않았다. 정부의 선진수단들이 만가동원될 때도 불구하고 안전보장판법안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이 갈에 따라 고조되었다.

민주당과 유신회를 비롯한 야당들은 안전보장판법안의 성립을 저지시키기 위해 390여개 지방의회는 물론이요 법원에 대한 반대연서 혹은 심중한 심의 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헌법학자들과 일본언론계는 안전보장 판법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번 번이 발표하였다. 일본언론계에서는 《안전보 장판법안을 철회하라!》, 《9조를 사수하 라!》, 《전쟁반대!》, 《아베반대!》 등의 구호 밑에 시위가 그칠새 없이 벌어졌다.

일본인민들이 위장자들이 떠돌아다니는 안전보장판법안의 위장자들을 동을 돌려달라는 것은 흔한 여지조차 없다.

평범한 대중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 참 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판법안이 거침없 이 통과된 것은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자들의 활무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익보수파들이 다. 현 집권자 아베만 놓고보아도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전쟁내각에 들어갔었던 독점군벌의 외손자이다.

어디서부터 사무라이의 물을 진하게 먹 은 외할아버지부터 《정헌론》자를 대한 야 가기를 자강가처럼 들으며 자란 아베의 성 장과정은 하나의 군국주의교육과정이었다. 아베에게는 《우익보수》의 피가 진하여 흐 르는 귀종파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현 국회의석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12년 12월 16일 이프 히로부미의 《정우회》를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자민당은 우익분자들의 거대한 집단 이다. 오베전부대 자민당은 여러가지 정치 개혁법을 강압제정하여 정치부대에서 진보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기반을 보수화하였 다. 특히 1990년대에 중선거구제를 대신하여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그 직접 적적계로 되었다. 당시 일본정계 《정우회》 는 그것이 자민당정치를 비난하는 정당을 을 국회에서 쫓아내는 파쇼적강권정치의 실현이며 헌법개각의 중요한 한걸음으로서 일본형파시즘의 추진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라고 까뻐했다. 사실상 일본국회에서 제침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무난히 통과되었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보수세력들이 관을 치 는 집권체제하에서의 필연적사실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전보장판법안도 다를 바 없다. 법안이 국회에서 한창 심의중에 있던 때에 군부는 법안성립을 전제로 하는 《사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놓았다. 이것은 일본 의 정계와 군부내에서 법안의 성립이 가정 사회화되어있었으며 국외의 여론이 민심 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요식행사에 불과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집권층이 현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 면서 안전보장판법안을 정식 법으로 성 립시킨 것은 《중앙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 를 제패하려던 제국시대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이번에 성립된 《안전보장판법》은 성격 과 내용에 있어서 군사적해의침략을 합법 화하는 전쟁법이다.

《안전보장판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 화와 안정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 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이고 《사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 수 있 게 되었다.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성문화한 헌법 9조를 완전히 폐지 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이로써 패망 70년이 넘도록 지난 세기 의 죄악을 털어버리지 않고있는 전범국 일 본은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꿈꾸는 호전국 가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주의책동은 아시아 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조 성하고있다. 광범한 국제여론이 일본의 재 침이 현실로 부추어지고있다고 평하는 것은 우연치 않다.

세계를 향해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 의 팽창은 크게 오산하고있다.

패망의 눈물로 전인류를 숙인 일본이 그 양갈음속에 내걸으며 하는 침로는 제 2의 패망으로 걸추는 자멸의 길이다.

오늘의 아시아는 지난날 일제의 군화 발밑에 짓밟혀 신음하던 수난의 대지가 아니다.

물론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없다.

전쟁을 반대하는 자국민들이 나가서 국 제사회의 탄압강제를 외면한 군국주의팽신 자들은 수직스러운 파멸이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 문이 글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안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3일부는 다음과 같 은 글을 실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발전 역사는 집일성주주의 건국업적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덕정치를 베푸시어 조선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다지셨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이 역사 의 주체라는 관념과 링광에 기 초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매 단 계에서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 력량으로 묶어세우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의거하여 사회 주의위업을 진전시켜오셨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선군혁명

평도로 조선의 군사적지반을 든 든히 다져놓으셨다.

에zell신문 《달 마짜이아》 6일부는 《불패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 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지난 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 는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이 주체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강성국 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지난 기간 주권

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부인하는 적대세력들의 압력을 물리치며 여러차례에 걸쳐 인공지구위성 을 쏘올리고 자위적핵시범을 하는 조선을 보면서 이 나라의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조선의 교육 제도 는 김정일령도자의 후대사상, 미래 사명의 정치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는 선군혁명병동의 전기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의 손길아래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 사국으로 되었다.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에는 김정은총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의 교육 제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로므니아의 진 정한 혁명가들은 정의로운 조선인 민의 반제반미투 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 을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현명 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 민이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일떠세울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조선로동당의 령도, 승리의 비결

영국 신문 글 게재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 음하여 영국공산당 《스-에니 주》지판지 《발카르》 9월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서 현대성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 이 전하였다.

조선은 지난 세기말과 여러 나 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파멸되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속

승고한 인도주의정신을 모독하고 짓밟는 반공화국모락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준비회담을 리행하기 위한 첫걸 음으로 출어진 가족, 친척사물 운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있다.

북과 남의 직접사단체들사이 에 상봉후보자생사화인의뢰 서가 교환되고 상봉장소인 금강산 현지상봉태사업도 진행 되어 상봉을 고대하는 겨레 에게 커다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번 상봉을 계기로 대결로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세계 각국 적십자회는 가족, 친척 들의 고향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 한 우리의 뜨거운 민족애와 적 극적인 노력에 대한 찬사를 없 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후진적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직접사단도 주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미국과 남조선반공세력들이 북남사이에 완화의 기미가 보일 때 마 다 감행하여온 극악한 도발행 위 때문이었다.

남조선의 위장자들이 세계의 약의 인민불모지로 락인된 제



몽골에서 집집 방문

러브에게대통령 레베코 타이 에드스칸이 14일 한 전화회 화에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13일 이스라엘정찰이 동부무드스에 있는 알 이크사사원에 침입하여 이슬람교도들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탄동을 부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용납할수 없을 탄압행위라고 강력 하였다. 그는 사원에 대한 일방 적인 조치들을 당장 걸어치워것

미국기업체를 고소

타이에서 3개 주의 주민들이 17일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준 죄로 미국의 한 가스채취업 체를 고소하였다.

그들은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가스추출로 그 주변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호흡기장애와 알레르기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있다고 폭 로하였다.

또한 대기와 물이 오염되는 등 생태대경이 심히 파괴되었 다 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강화

쿠바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지 위를 강화하였다.

제네바주재 쿠바상임대표부 가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 여성 들은 인민주권투쟁의 대의현 수에서 48.8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 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자동차생산 증대

이런저기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5개월동안에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 규탄

이스라엘정국에 요구하였다.

오르단수상이 17일 한 발언에 서 팔레스타인의 알 아크사사원 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사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지역의 평화

유엔안보리사회확대문제에 결을 주장

로씨야외무부 부상 겐나자 가벨로프가 16일 마스콥신파 의 회견에서 유엔안보리사회확 대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로씨야는 유엔안보리사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 정한다고 하면서 그는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 리카 등 일련의 지역들에 대 북독립 리사회에 자기의 대표 를 두고있지 않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안보리사회확대문제와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생산량이 지난 이란년도 의 같은 기간에 비해 8.7% 높 이었다. 13일 이 나라 신문 《레 탄 리스》가 밝혔다.

축수경기장 건설

카타르에서 최근 2022년 월 드컵경기대기지를 위한 축수경 기장건설을 다그치고있다.

특히 루싸일에서 건설되는 경 기장은 현재 건설중인 모든 경 기장들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서 수용능력이 8만명에 달한다. 이 경기장에서 대개 개 막행사와 결승경기 대개행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4)

음흉한 목적이 깔린 내정간섭행위

지난 20세기 말엽 세계제대 야맹에 들뜬 미국은 유고슬라비아 를 타도할 목적으로 이 를 실현하기 위해 음모양모로 책동하였다.

발칸반도의 주요한 전략적지 역에 위치하고있는 유고슬라비아 과 《코소보해방군》에 대한 집단 작전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뒤에서는 민족간충돌 을 부채질하고 앞에서는 《중재 자》, 《인원중재자》의 행세를 하 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 들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내부 문제인 코소보문제를 국제화하 기 위하여 핵전쟁의 위협까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나토안 예시는 코소보에 대한 군사적개입 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3월 24일 미군주도하의 나토 군은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는 남강도적인 군사적공격을 개시 하였다. 미군주도하의 나토군은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키려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댔 다. 매일 3 700만USS이상의 자금을 탕진해가며 1 200대 의 비행기를 출격시켜 9 0 0 0여개의 군사 및 민간대상물 을 2 300여개의 공중타격을 강행하였다. 미군주도하의 나토 군은 각종 폭탄을 지어 국제적 으로 사육이 금지된 화학무기나 을란까지 마구 퍼부었다. 공중 폭격과 함께 수많은 《토마호크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4)

아인들을 계속 부추겼다.

쓰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 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도수를 넘어 대립충돌로 번져졌다.

이때 대처하여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코소보에 령방부대를 파 견하여 알바니아분류주의자들 과 《코소보해방군》에 대한 집단 작전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뒤에서는 민족간충돌 을 부채질하고 앞에서는 《중재 자》, 《인원중재자》의 행세를 하 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 들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내부 문제인 코소보문제를 국제화하 기 위하여 핵전쟁의 위협까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나토안 예시는 코소보에 대한 군사적개입 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3월 24일 미군주도하의 나토 군은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는 남강도적인 군사적공격을 개시 하였다. 미군주도하의 나토군은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키려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댔 다. 매일 3 700만USS이상의 자금을 탕진해가며 1 200대 의 비행기를 출격시켜 9 0 0 0여개의 군사 및 민간대상물 을 2 300여개의 공중타격을 강행하였다. 미군주도하의 나토 군은 각종 폭탄을 지어 국제적 으로 사육이 금지된 화학무기나 을란까지 마구 퍼부었다. 공중 폭격과 함께 수많은 《토마호크

에블라비루스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라레에서 에블라비루 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다. 이 나라의 국가에 블라데옌테라가 밝힌데 의하면 13일 에블라비루스에 감염되어 앓고있던 16살 남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플레타 전파

부룬디의 서부주지역에서 최근 플레타 전파되고있다.

17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 힌데 의하면 9월에 들어와 전 국적으로 27명의 플레타감염자 가 등록되었다.

생태환경과교문제

영국에서 생태환경과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6일 영국왕실생태학회가 야 생동물보호부의 토양분석자 를 발표함에 의하면 에네르기 회사들이 보호구의 290여곳에 서 원유 및 핵연료원사를 무질 서하게 버려 생태환경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진 교해

칠레의 중부지역에서 16일 리히터척도로 8. 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 었으며 3 000개의 살림집이 파손되었다. 또한 해일이 일어났기에 예견되었는것과 관련된 해안지역에서 100만여명 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 피하였다.

생태환경과교문제

영국에서 생태환경과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6일 영국왕실생태학회가 야 생동물보호부의 토양분석자 를 발표함에 의하면 에네르기 회사들이 보호구의 290여곳에 서 원유 및 핵연료원사를 무질 서하게 버려 생태환경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진 교해

칠레의 중부지역에서 16일 리히터척도로 8. 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 었으며 3 000개의 살림집이 파손되었다. 또한 해일이 일어났기에 예견되었는것과 관련된 해안지역에서 100만여명 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 피하였다.

생태환경과교문제

영국에서 생태환경과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6일 영국왕실생태학회가 야 생동물보호부의 토양분석자 를 발표함에 의하면 에네르기 회사들이 보호구의 290여곳에 서 원유 및 핵연료원사를 무질 서하게 버려 생태환경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진 교해

칠레의 중부지역에서 16일 리히터척도로 8. 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 었으며 3 000개의 살림집이 파손되었다. 또한 해일이 일어났기에 예견되었는것과 관련된 해안지역에서 100만여명 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 피하였다.